

## 국한성 두경부 Diffuse Large Cell Lymphoma의 적정 방사선 조사 선량

연세대학교 연세암센터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학과†

금용섭\* · 서창옥\* · 박희철\* · 김용배\* · 심수정\* · 노재경† · 정현철† · 김귀언\*

**연구목적** : 두경부에 국한된 제 1기, 제 2기 Diffuse large cell 비호치킨 림프종의 병합 항암화학 방사선치료시 방사선 조사야 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 방사선 조사 선량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5년 5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연세암센터에서 국한성 두경부 Diffuse large cell 림프종으로 항암화학 요법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5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제 1기, 제 2기 환자가 각각 27명, 26명이었으며 종양 크기별로 5cm 이하가 30명, 5cm 초과가 23명이었었다. 원발 병소는 경부 림프절 22명, 편도 20명, 비인두 4명, 설기저부 3명, 부비동 2명, 후두 1명, 연구개 1명이었었다. 항암화학 요법은 최소한 2회 이상 시행되었으며 방사선 치료는 48명이 원발 병소와 경부 임파선을, 5명이 원발 병소 만 치료하였다. 방사선 선량에 따른 방사선 조사야 내에서의 재발 빈도, 조사면내 무재발 생존율, 무병 생존율,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결 과** : 항암화학 요법 후 44명이(83%) 완전 관해 되었고 연이은 방사선 치료후 53명 모두 완전 관해 되었다. 2명의 환자에서 방사선 조사야 내 재발이 있었고 방사선 조사야 바깥 재발은 복강 및 골반내 림프절, 종격동 림프절,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위장관, 폐, 뼈, 간, 연수막에서 총 11명이었었다. 방사선 조사 선량 별 조사야 내 재발은 30~<35Gy에서 7명중 1명, 35~<40Gy에서 16명중 1명, 40~<45Gy에서 3명중 0명, 45~<50Gy에서 20명중 0명, 50Gy 이상에

서 7명중 0명이었었다. 조사야 내 재발은 모두 5cm 초과된 중앙에서 발견되었다. 첫째 예는 제 2기로 항암화학 요법 6회 후 완전 관해 상태로 30.6Gy 종료 후 5개월에 재발하였고, 둘째 예는 제 2기로 항암화학 요법 4회 후 완전 관해 상태로 39.6Gy 종료 후 11개월에 재발하였다.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생존율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으며, 10년 방사선 조사야 내 무재발 생존율, 무병 생존율, 전체 생존율은 각각 96%, 76%, 75%였고 병기별 생존율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국한성 두경부 Diffuse large cell 림프종에서 병합 항암화학 방사선치료후 12명중 11명이(91%) 방사선 치료 조사야 바깥에서 재발했으며, 조사야 내의 방사선 조사 선량별 재발빈도는 상이한 차이가 없었다. 종양의 크기가 5cm 이하인 경우 재발이 없어 병합 항암화학 방사선치료시 5cm 이하에서는 30Gy로도 국소 조절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적은 방사선량의 조사로 구강건조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5cm 이상의 2예에서는 40Gy 이하에서 조사야 내 재발이 되었으나 생존율의 차이가 없고 재발 빈도가 낮아 높은 조사 선량이 필요할지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 방사선 조사 선량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 국한성 두경부 Diffuse large cell 림프종 · 병합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 조사면내 재발.